



함은혜
이복삼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좋아하는 찬송가 중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란 곡이 있는데, 얼마 전 그 곡의 영어가사를 읽다 몽클했습니다.

“이슬이 아직 장미꽃 위에 있을 때, 홀로 정원에 갔습니다. 그 곳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달콤한지, 지저귀던 새들도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들려 주시는 선율이 마음을 울립니다. 밤이 주위에 떨어지며 날이 밝아왔지만, 그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후렴구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그는 나와 함께 걸었고, 나와 함께 이야기 했으며, 내가 그의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그 곳에서 우리가 지체하며 나누었던 기쁨을 아는 이는 없습시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정원을 거닐다 뜻밖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반가워하며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에서는, 초막 셋을 짓자던 베드로 님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곳에서 우리가 지체하며 나누었던 기쁨을 아는 이가 없다’는 부분은,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자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존재가 예수님을 깨닫고 벽찢을 때와도 닮은 듯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저와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시면서 “너 내 꺼야” 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그만 세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한국어 가사로는 이렇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

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저도 그 정원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저를 인격적으로 아는 존재와 속 깊은 대화 나누면서, 착한 이야기 하고, 좋은 말들 하면서 기쁘게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저는 좀 더 나은 사람이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상으로 안 보내시면 안 되냐고 묻고도 싶습니다. 가사 속 정원 같은 순간을 실천하며 사는 게 주님 자녀로서 할 일 같기도 하지만, 부끄럽게도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요즘 저에게 어려운 순간은, 상대의 무례함에, 어이 없는 대응에, 생각도 못한 감정풀이에, 부당한 요구에, 때로는 대놓고 ‘당신은 교회 다니잖아. 당신이 참아야지’ 라는 말 앞에서, 그래서 단전에서부터 답박(!!!)이 올라올 때...ㅎㅎ

그럴 때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옥한 김에 뭐라고 쏘아붙이고 싶지만, 그러면 안될 것 같고, 대응한다면 어느 선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틀리거나 잘못할 때도 많으니, 순간의 생각대로 하면 안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하나님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최소한 주님 얼굴에는 먹칠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받아 칠 순간은 지났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게 두고두고 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사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있었던 일들 얘기하고(이미 다 아실 테니 수위조절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a), 고민을 토로하고, 조언도 듣고, 위로도 얻고... 당신의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 내 꺼야” 라니... 예수님 참 로맨틱하지 않나요?

저와 결은 다르더라도 이런저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혹은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지치셨다면, 저 가사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녀로 산다는 게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모를 때도 많고, 하기 싫은 방향일 때도 많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내 편이시고, 내 뺨이시고, 동반자로서 매 순간 같이 계시 겁니다. “너 내 꺼야” 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고단한 오늘의 따뜻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화교회

주보 제 2019-32호

배화여자대학교 부속 대학교회

2019.08.04



성령강림 후 제 8주

*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례송 *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로의 부름 * 다같이

인도자 :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회 중 :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다함께 :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찬양 * 다같이 (인도: 강영건 간사)

예수로 살리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온 땅은 주님의 성소 / 시간을 뚫고

대표기도 강영건 간사

기도송 다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교회소식 및 아이들 축복기도 김영석 목사

봉헌 우리교회를 위한 기도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맘에 미움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2.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주님의 가정 삼옵소서
3.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봉헌기도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칭찬받을 만한 인생 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청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갈라디아서 5장 16-26절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교 김영석 목사 성령의 한 가지 열매

찬양과 기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축도* 김영석 목사

지난주 통계

인원	80명
헌금	십일 조 강영건 박세연 백수산나 서민욱 이아름 이동근 이은미 이병홍 허경식 함은혜 감사헌금 권태성 서광희 허경식 함은혜 주일헌금 강영건 김미연 김수연 김영석 홍병진 김예현 김용석 유재연 김재홍 김선민 김택운 김택현 박세연 박 준 박진성 배빛나 송민혜 송윤경 윤서진 배성경 윤영미 이병홍 정우석 최명성 최영광 최인성 최정용 추세영 태미선 허경식 함은혜 무 명 목적헌금 성임숙 허경식 함은혜

교회소식 Church Announcement



서틀은행
사적동주민센터
 문의: 송민혜 전도사
 010.4518.1678
 10시-10시50분

속회시즌 9
복음과 삶
 복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공동체를,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여름물놀이 에덴유치부에서 물놀이를 준비합니다. 다음 주일, 점심식사 후에 물놀이가 있으니 수영복과 여벌옷을 챙겨주세요. 안전을 위해 유치부와 유아부는 따로 풀장을 준비하겠습니다. (문의: 백수산나 간사)

손으로묵상 <야고보서> 완필자는 (호칭생략) 김수현, 김영석, 김용석, 김은철, 김재홍, 노준영, 박세연, 문지혜, 성임숙, 송민천, 송윤경, 최명성, 최영광, 추세영, 함은혜, 허경식, 홍성희 성도입니다.

배식 및 정리 오늘은 1속(만두속), 다음 주는 2속(이복쌈속)입니다.

• 대표기도

8.11	권태성
8.18	서광희
8.25	김미소
9.1	김선민

- * 홈페이지 : www.baewhach.kr
- * 유튜브, 인스타 : 배화교회